

■ 2018년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도서선정 심의 총평

- 사업명 : 2018년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평론·희곡)
- 회의일시 : 2019년 1월 30일 10:30~
- 회의장소 : 문학나눔 회의실

2018년 4월부터 10월 사이 초판 발행된 희곡과 평론 단행본 37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 총 5권의 도서를 선정했다. 다른 장르에 비해 지원 종수는 적었지만, 밀도 있고 수준 높은 작업이 많아서 최종 선정작을 합의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1차 선정과정에서는 작품이 1)문학적으로 우수한지, 2)한국문학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3)독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며, 문학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했다. 2차 선정과정에서는 이 사항들에 덧붙여 본 도서보급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평론의 경우, 평론장르의 문학적 특징과 정통성을 갖춘 작품들이 많았지만, 평론, 문학평론의 외연을 심화, 확장할 필요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을 간과할 수 없었다. 형식적 특징에 충실하지 않지만 전문독자와 일반독자의 가교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을 두고 진지한 논의도 오갔다. 전통적 의미의 문학평론 성격이 아니어도, 한국문학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접근성과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들이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문학평론의 장르적 특징과 그 스펙트럼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평론장르가 위축된 분위기나 젊은 평론가의 평론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지원 대비 선정종수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필요해 보인다.

희곡의 경우, 읽는 희곡으로서의 깊이뿐만 아니라 무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 중 특히, 설화를 원형으로 하는 작품이 문학과 연극성이 잘 견비되어 있었고 성공적인 공연으로 이어진 바 있어 주저없이 선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한 소재의 청소년 연극이 풍부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공연화의 가능성과 청소년 교육현장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이 여러 면에서 가능성이 보여 선정하게 되었다. 그 외, 고전적 주제를 재해석하는 작품이 선정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5종은, 한국문학 평론과 희곡의 역사성 뿐 아니라 동시대에 대한 관심을 풍부하게 환기시키며, 본 사업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정된 도서들이 한국문학의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기대하고, 평론과 희곡 창작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심의위원 일동